
공공미술위원회 회의록

2018. 3.

문 화 본 부
(디자인정책과)

2018년 제3차 공공미술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 일 시: 2018. 3.21.(수) 15:00~17:30
- ◆ 장 소: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1동) 5층 회의실
- ◆ 참 석: 공공미술위원회 위원장 등 15명
- ◆ 안 건: 심의 2건(전봉준 장군 동상,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 ◆ 심의결과: 조건부 승인 1건, 보완 1건

□ 위원 발언 내용

위원장: 성원이 되어 제3차 공공미술위원회를 시작함. 상정안건 2건으로 1번이 전봉준 장군 동상, 2번이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임

자문 1.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보완 재 심의)

000 : 지난번 2가지 보완 요청에 대한 담당자 경과보고를 들겠음

000 : 전봉준 장군에 대한 역사적 평가, 장소성, 연계성에 대한 공신력 있는 역사전문가의 자문 요청, 이해관계인 동의서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자료를 받음. 자문결과는 붙임자료 참고 바람

000 : 인물에 대한 역사적 평가, 건립의 당위성에 대해 적어도 공인된 기관 3군데 이상 자문을 요청함. 한국학중앙연구원, 독립기념관, 동학농민혁명재단 3곳에서 자문 받음

영풍문고 자리가 1895년 전옥서라는 장소와 건립 장소 주변 이해관계자 동의로는 영풍문고에서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함

지난번 회의 시 역사적 인물 심의절차 및 기준을 적용하자는
내용으로 기타 보완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람

000 : 공공미술위원회에서는 설치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조회나 자문
결과를 판단한 후 디자인 형식에 대한 자문이 있는데 공신력 있는
역사전문기관에서 역사자문을 3군데 이상 받아오라고 했는데..

000 : 역사전문 5개 기관은 명시하고 2개 이상을 포함하여 총 3개
이상의 기관 자문을 제출하도록 하는게 좋겠음

000 : 두 번째는 설치 장소 주변의 이해관계인 동의 및 시민의견, 어느
정도가 시민이라고 하는 기준은 인근에 사는 주민인지, 전국적
국민인지 애매함.

000 : 두 가지 모두 포괄함. 자문에서 전체 국민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근처 주민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주요 지역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주셔서 설치 장소의 주변
이해관계인으로 함

000 : 공공미술위원회 심의기준 논의나 기준이 이곳에 이 인물이
세워져야 하는 것만 한정된 것 같음. 공공미술에 대한 심의가
아쉬움. 예를 들면 전봉준 장군의 작품의 스케일이 타당한지,
표현기법은 어떤지 미적인 부분은 어떤지... 그런 이야기들도
나와야 할 것 같음.

000 : 2가지 평가를 해야 하는데 첫째가 설치타당성, 기념대상이나
인물이 여기 설치되어야 맞느냐 하는 것, 그건 역사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거고, 두 번째는 미학적 판단임

우리의 전문성은 디자인에 국한된다고 볼 수 있음. 이 부분은 계속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

000 : 역사적 인물 경우 주체자들이 뭔가 가져올 수 있지만, 고시를 해서 상황을 직접 볼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설치 계획을 모를 경우 청원 할 수도 없으므로 고지의 절차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인물 동상이기 때문에

000 : 전봉준 장군 동상관련 보완된 자료 포함 의견 주시고 의견 취합해서 최종적으로 승인 여부 결정함

000 : 작품성 의견 주시면 되겠음

000 : 동상설치에 대한 건립의도는 충분히 파악이 되지만, 끌려가는 모습으로 디자인이 된 형태는 이해가 어려움

000 : 전봉준 장군 관련 존재하는 사진이 1컷으로 이 이미지로 알고 있음

000 : 영원한 혁명의 길이라고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 사진이 유일하다고 이걸로 재현한다면 연계성, 당위성이 부족해 보이고 설득력이 적음

000 : 대중과 소통이라는 면에서 볼 때, 이 장면은 이해되는데 좌대와 화강석과 브론즈라는 재료, 그리고 형식 자체가 오늘날 도심에서

조각상으로 맞는지 의문임

- 000 : 지금 다시 새롭게 현대도시에 맞는 것을 뽑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지금 이 상태는 우리가 감안하고 결정을 해야함
- 000 : 그 장소는 사람들이 보행하는 공공 공간임. 2.3m는 보도 위에 원활한 통행(보행)을 막을 수 있어서 공간 관점에서 점거, 점유하지 않는 관점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 봄
- 000 : 밑에 얇은 좌대가 4.5m 있음. 중복된 좌대의 형태로 보임
- 000 : 종각역 출입구 2군데 사이에 있는 장소로 차도를 향해 차를 타고 지나가는 시민이 볼 수 있도록 하였고, 건너편에서도 볼 수 있도록 높이 설계된 것으로 보임
- 000 : 투시도와 도면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음. 현황의 모습이 이런 상황이 아닐 것 같음
- 000 : 길가에 녹지가 조성. 종로구청에서 녹지는 조감도처럼 변경 허가 상태이며 좌대는 좌대 2.3m, 3.5m, 좌대 1.3m, 동상크기 1.5m 임
- 000 : 현황 도면과 조감도, 조경 등 바뀐 부분의 도면이 어떤 통로로 움직일지 명확한 도면 필요. 밑 좌대라도 없어야 걸리지 않을 것 같음. 통로로 가다 걸려 넘어질 수도 있어 유니버설디자인 입장에서라도 문제가 될 것 같음.
- 000 : 그 것을 조건부로 하면 좋을 것 같음

- 000 : 통과시키고 나면 조건부는 조건부일 뿐 어떻게 될지 보장 어려움. 지금 당장 결정하기보다 민감한 문제로 오늘 결정해서 넘기는 것이 무리가 될 수 있다고 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부분이 많음. 동상의 모습이 미술작품으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일반시민 입장에서 볼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봄
- 000 : 좌대를 높이는 이유는 이해가 가는데, 끌려가는 모습이 동상으로 적합한가에 대한 이미지는 이해가 여전히 안감. 전봉준 장군이라는 인물을 동상화시킨다는 것으로 할 때 죽기직전 끌려가는 모습을 고착화시키는 것이 일반 대중과 소통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해 보임
- 000 : 전봉준 장군의 활동 시기별로 다를 수 있는데, 마지막 처형당한 장소이다 보니 다른 모습으로 구성 시 장소성과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음. 도심에서 활기 있고 선도적인 모습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지만 장소적 연계성을 고려해서 제작한 의미로 보임
- 000 : 공원이 아니고 도심의 공공장소이어서 보여지는 모습으로 종전모습 현황이나 평면(도면) 등이 필요함. 그래야 예술성 뿐 아니라 공공성, 안정성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000 : 최소한 밑에 단은 없애는 것 등 앞으로 좌대는 없애거나 낮추는 등 기준이 필요하다고 봄
- 000 : 강제를 할 수 없다고 봄.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음

- 000 :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전대를 낮췄으면 좋겠음. 이 모습이 끌려갔을 때 그 모습의 높이가 마차에 90센티 높이의 선이니 높이도 고민해서 하고 안전, 보행 등을 위해서 맨 밑바닥을 없애는 것이 좋을 듯함
- 000 :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동상 설치 장소에 처형된 전옥서 장소 설명이 명확해져야 함.
- 000 : 좌대, 표지석 내용 등을 보완 후 서면 등으로 위원들이 확인해서 이견없음으로 하면 조건부로 가는 것으로 하고, 아니면 부결로 했으면 함.
- 000 : 빠른 시일내에 보완 요청한 내용 수정 보완해서 조건으로 승인하는 것으로 함
- 000 : 위원들의 문제점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건부로 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좀 더 신중해야 될 것이라고 보임
- 000 : 장소 타당성 등 근거들도 가지고 왔는데 주변 환경과 더불어 새로운 의견을 주고 여러 가지 고려한 안들이 있어야 의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 000 : 양면적인 고민이 있음. 공공미술 큰 기조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통용된다면 안된다는 원칙적인 입장이 있음. 보행에 지장을 주므로 단을 낮추라는 정도의 수정은 가능하지만 동상 모습에 대한 디자인 측면 요구는 어려움
- 000 : 심의가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해야 하는데, 전면적으로

디자인을 아예 새로운 방식으로 할 게 아니라면 지금 쟁점에서 조건부 승인을 할 수 밖에 없음. 그렇지 않고 미루라면 처음부터 디자인을 검토하자는 사항이므로 조건부 정도가 적절한 판단이 아닐까 생각함

000 : 동상 심의를 할 때마다 신중에 또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많은 고민이 되고 지금 선택을 하는 것이 최선인지가 생각함

000 : 보완 요청 시 역사적 근거자료에 대하여 요청 가능하지만 동상이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 심의가 들어왔으므로 보완 조건이 하단 조정밖에 없어 보임. 조건부 자체가 프로세스 상 미적 조정 등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보완 요청 보다는 차라리 승인, 부결로 선택할 수밖에 없음

000 : 전봉준 장군을 기리는 거라면 오히려 이런 전통적 조각상이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 장소 이 컨텍스트 안에서 조각상이 어떻게 들어서게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도 그렇고 장소를 보고 사이즈를 봐야 좌대를 낮춘다던가 할텐데 현장 컨디션을 모르고 감을 잡기에 어려움이 있음.

건립주체는 조형물이 잘 보이길 원할 것임. 그걸 우리 위원회가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도시와 지역과의 맥락 안에서 우리 위원회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우리 위원회가 선을 정해야 함.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기준점 논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심의 기준이 됨

000 : 충분히 입장 설명이 있었고 의견들이 엇갈리므로 최종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음. 조건부 승인이나 불승인 이나 결정하고
참석위원 다수결로 정하겠음. 거수로 표결해 주시기 바람

조건부 승인 5명, 부결 2명, 기권 1명으로 조건부 승인으로
지적사항을 보완(반영)하여 진행토록 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음

2.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000 : 담당자 경과보고 바람

000 : 신청은 1월 16일, 자료 미비로 1차 수정요청, 1월 31일 토지
사용 승인, 3월 5일 사업 주관기관 승인으로 들어왔음, 위치는
마포구 택지개발 앞에 있는 박정희대통령 기념관 중앙계단
앞이며, 관련자료 참고 바람

000 : 전봉준 장군 동상에 적용한 심의 기준과 절차를 적용할 경우, 이
추진 단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보완요청이 필요하다고 봄. 5개
주요 역사 전문기관 2군데 이상과 그 외 1개 이상의 역사적
타당성 확인을 보완할 것, 그리고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공감도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는 두 가지 보완이 필요함.

역사적 타당성에 대하여는 역사전문기관 5개 기관 중 2군데
이상에 대한 보완, 지역 주민들과의 공감대에 대하여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될 수 있음.

000 : 추진경과를 보면 마포구청 의견과 3월16일 연구소로부터
서울시의회에 청원이 접수됨. 오경환 의원요청이고 마포구 소속
시의원임. 자료 마지막 장에 현재 위치에 대한 도면, 마포구

상암동 일대 특성 등 참고 바람

- 000 : 역사인물에 대한 기념 동상일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경우 인물상을 세워야 함에 대한 반론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결국 역사 전문 기관의 역사적 판단일 것임. 문제는 이 지역에 주민들의 의견, 지역의 공공 기관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그것이 합당한지 논의가 필요함
- 000 : 공신력 있는 역사전문기관 의견을 구하는건 용이할 수 있다고 봄. 설치장소의 이해관계의 동의와 시민의견 부분이 애매함. 전봉준 장군은 어떻게 보완을 요청했는지...
- 000 : 설치장소 주변이해 관계인의 동의 등 시민의 의견임
- 000 : 그러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음. 주변이라는 것들이 아파트만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고 주변의 신문사 등 정량적으로 주민의 몇 %는 무리 일 수 있음. 여긴 이미 반대 의견이 들어왔지만 다른 것들은 공지 등 알려지지 않아서 주민들이 반대 목소리가 실행주체에게 의견 수렴하는데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봄
- 000 : 고시하는 기간을 적용해 보면 좋겠음. 그 공간의 주인으로서 주민들이 목소리를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봄. 충분히 검토해야 할 상황으로 보임
- 000 : 역사전문가 자문회의때 역사적 평가라는 것이 사후 50~100년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아직 평가를 할 수 없는 인물에 대한 동상은 현재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000 : 그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움. 시민의 영웅이고 실제 인물이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의 동상이 세워진 것이 해외에는 있음
- 000 : 디자인정책과 웹사이트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 있는지
- 000 : 공공미술 작품 설치할 때 SNS를 통해서 웹이나 투표 같은 것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한 사례가 많이 있음
- 000 : 그런 방식으로라도 공지하고 여러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면 좋겠음. 적어도 그런 절차가 선행적으로 필요한 절차가 아닌가 싶음. 광고를 낼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여론조사기관에다 의견수렴 할 수 있는것도 아님
- 000 :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은 보완 요청사항을 받은 다음에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000 :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관련해서 추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람
- 000 : 일관성의 문제인데 SNS로 보름의 시간을 주고 의견을 받아서 결정하는데 참고로 한다면 전봉준 장군부터 해야함. 조건부 승인은 했지만 동시에 이 프로세스에 넣겠다고 해야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도 가능함. 박정희 전 대통령 때만 한다는 것은 맞지 않음
- 000 : 동상이 인물 기념관 외부에 설치된 사례가 있는지. 김구, 안중근 동상도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데 전봉준 장군 동상과는 다른 사항으로 전봉준 장군은 야외에 세우는 동상이면 박정희대통령

기념관에 동상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모든 기념관에 동상은 있는데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는걸로 알고 있음. 효창공원 김구 기념관도 내부에 김구 동상이 설치되어 있음

000 : 내·외부 문제이기도 하지만 공공 공간으로 들어 오는게 문제임

000 : 기념관이라 하더라도 대학, 단체, 기타 법인 부지에 있으면 실내외 무관하나 사유지라서 심의 대상임

000 : 주요 역사 관련 전문기관 3곳 이상의 역사적 타당성 확인을 요청하고 주민들의 이해당사자의 의견 반영 요청을 보완사항으로 하고, 그것을 통해 재심의를 하게 되니까 이번 심의회의 에서는 불승인 하는 것으로 정리해도 되는지

000 : 좋음

000 : 2분기 일정을 기 안내해 드린 일자로 이의가 없으면 결정하겠음
오늘 위원회 최초로 표결까지 하면서 열띤 논의에 참여해 주신 위원께 감사드리며 3차 회의를 마치겠음